

11
2018

재외동포의

창

특집: 모국과 상생발전 모색한 인천 제17차 세계한상대회 성료



풍년을 기원하고 공동체의 복을 비는 우리나라 대표 공연예술 ‘농악’

“농악 공연이 북돋는 흥겨운 기분은 한국인의 가장 두드러진 감정”



1.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9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을 찾은 시민들이 농악놀이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2.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는 2014년 11월 27일 한국의 대표적인 종합예술인 '농악'이 일 년 내내 다양한 형태와 목적으로 행해지고 공동체에 활력과 정체성을 제공하는 한편, 인류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내외 다양한 공동체 간 대화 촉진과 무형문화유산 가시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 등을 인정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농악은 공동체 의식과 농촌 사회의 여흥 활동에서 유래한 대중적인 공연 예술의 하나이다. 타악기 합주와 함께 전통 관악기 연주, 행진, 춤, 연극, 기예 등이 함께 어우러진 공연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로 발전했다.

각 지역의 농악 공연자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마을신과 농사신을 위한 제사,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축원, 봄의 풍농 기원과 추수기의 풍년제, 마을 공동체가 추구하는 사업을 위한 자원 마련 행사 등, 실로 다양한 마을 행사에서 공연되며 각 지방의 고유한 음악과 춤을 연주하고 시연한다.

고유한 지역적 특징에 따라 농악은 일반적으로 경기·충청도, 영동(강원도), 영남(경상남북도), 그리고 전라도를 호남 좌도와 우도로 나눈 5개 문화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마을과 마을에 따라 농악대의 구성, 연주 스타일, 리듬, 복장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대부분의 농악대가 고향이나 마을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

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마을 공동체와의 끈끈한 연관성을 유지하며, 이러한 특성 덕분에 민속 예술 농악의 보존과 전승을 담보할 수 있었다.

농악 춤에는 단체가 만드는 진짜기, 상모놀음 등이 병행된다. 한편 극은 탈을 쓰거나 특별한 옷차림을 한 잡색들이 재미난 손극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행된다. 버나 돌리거나 어린 아이를 어른 공연자의 어깨 위에 태워 재주를 보여주는 무동놀이와 같은 기예도 함께 연행된다. 일반 대중은 이러한 공연을 관람하거나 참여함으로써 농악과 친숙해지는데, 공동체의 여러 단체와 교육 기관은 농악의 여러 상이한 요소들의 훈련과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악은 공동체 내에서 연대성과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일한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농악 공연이 북돋는 흥겨운 기분, 즉 신명은 한국인에게서 발견되는 가장 두드러진 감정이라 여겨지기도 한다. **창**



- 02 한국의 얼 풍년을 기원하고 공동체의 복을 비는 우리나라 대표 공연예술 '농악'
"농악 공연이 복돋는 흥겨운 기분은 한국인의 가장 두드러진 감정"
- 04 특집 모국과 상생발전 모색한 인천 제17차 세계한상대회 성료
한상 등 5,000여 명 참가, '글로벌 비즈니스·네트워크 한마당'
- 06 화제 기대 커진 교황의 역사적 방북... 한반도 평화 여정에 큰 등대 되나?
"공식초청장 오면 갈 수 있다"... 마지막 냉전 지대에서 평화 주선 역할 할 듯
- 08 기획 고려인 강제이주 81년... '디아스포라'의 아픔 '현재진행형'
불모지에 뿌리내린 놀라운 생명력... 자녀교육 힘써 각 분야에서 두각
- 10 글로벌 코리아 재일동포 법적 지위 향상·한일 친선교류 앞장선 오공태 前 재일민단 단장
佛 중부 산악지역 클레르몽페랑서 한국 알리는 박선영 한글학교장
남미 파라과이 양계 시장 1위 기업 이끄는 구일희 대표
- 12 한민족 공감 슈뢰더 전 독일 총리-재독 동포 김소연 씨 부부, 서울서 결혼 축하연
"제 인생의 절반 한국에서 아내와 함께 살겠다는 약속 실천할 것"
- 13 지구촌 통신문 "어렵지 않네요"... 터키서 한국어 제2외국어로 채택·수업 시작
이번 새 학기부터 교고서 한국어 과목 개설... "소수지만 시작에 의미"
- 14 동포소식 고경주·홍주 일가족 미 코네티컷 주 '명예의 전당'에 헌액 외
- 17 동포 캘린더 '봉오동 전투' 흥분도 장군 75주기 추모식 카자흐서 열려 외
- 18 유공동포 구한말 도미해 미군으로 1차대전 참전... 유럽에 남아 독립운동 펼친 황기환
송환 위기 동포들 佛에 정착시켜... 임정서 활동하며 강대국에 독립 당위성 설파
- 19 주목! 차세대 '아메리칸 드림' 이룬 美 민주당 첫 한국계 연방하원의원 앤디 김
"의회에서 한반도 관련 이슈에 크고 강한 목소리 내겠다"
- 20 OKF 뉴스 한-베 다문화가정 자녀 위해 도서 6천 5백여 권 기증 외
- 21 우리말 배워봅시다
- 22 동포문학 나의 공간
박현서(중국) 동포문학상 중고등부문 장려상
- 24 고향의 맛·멋 "전어 안 먹고 가을 보낼 수 없지요"
불포화 지방산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 도움 주고 두뇌 발달에도 좋아
- 26 재단공지



표지 이야기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 간 상생을 모색하고 글로벌 한민족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제17차 세계한상대회'가 10월 23~25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발행인 : 한우성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부 prc@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모국과 상생발전 모색한 인천 제17차 세계한상대회 성료

한상 등 5,000여 명 참가, '글로벌 비즈니스 · 네트워크 한마당'

전 세계 재외동포 경제인파와 국내 기업 간 상생을 모색하고 글로벌 한민족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제17차 세계한상대회'가 10월 23~2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하나된 한상, 함께 여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60개국 한상과 국내 기업인 등 5,000여 명이 참가했다.

국군외장대의 축하 공연으로 문을 연 개회식은 문재인 대통령 축사,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개회사, 박기출 대회장의 대회사, 박남춘 인천시장의 환영사에 이어 시장 주최 환영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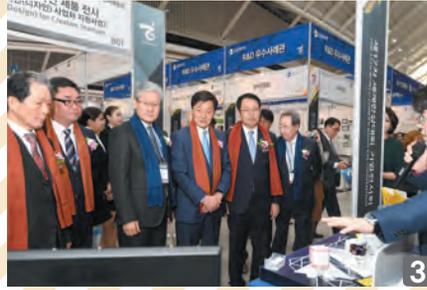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짧은 기간 기적 같은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졌고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실현할 때 우리 민족과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며 "한민족이라는 강한 유대감을 가진 한상들이 우리 경제에도 세계

경제에도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각지에서 한민족 경제영토를 넓혀온 여러분 덕분에 글로벌 한상 네트워크가 탄생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모국과 동반 성장하는 한상의 위상을 확고히 세우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한상대회 운영위원, 리딩CEO, 인천 지역 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열린 '한상포럼'에서는 윤종록 가천대 석좌교수가 '소프트파워가 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컨벤시아 전시장에서는 기업전시회 오픈 행사도 열렸다. 중소기업 특별관, 아이디어 상품관, 글로벌 식품관, 수출 우수 기업관, IT 기업관, 뷰티·이미용관, 스타트업관 등 259개 전시 부스가 29일까지 운영됐다.



한상들 성공 노하우 공유하며 네트워킹

대회 이틀째인 10월 24일 대회장인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는 국내외 경제인에게 글로벌 성공 노하우를 전하는 강연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회 등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오전에 열린 '한상 리더십 콘퍼런스'에는 장병규 4차산업 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배틀그라운드 탄생까지 30년'을 주제로 성공 신화를 소개했다.

이어 파라과이에서 양계 시장의 40%를 점유한 라스 따쿠아라스(LAS TACUARAS)를 이끄는 한인 2세 구일회 대표는 "이민 1세대가 보여준 한민족 특유의 끈기와 개척정신이야말로 해외 창업·취업에 꼭 필요한 자세"라고 조언했다.

오후에는 '한상 비즈니스 세미나'가 신 북방정책, 신 남방정책, 비즈니스 세법, 아프리카·중동 투자 등 4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돼 맞춤형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 전략을 모색했다.

신 북방정책 세션에서 천용수 호주 코스트그룹 회장은 "북한 주민들도 경제 발전을 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만큼 남북 화해와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한 투자·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남방정책 세션에서는 베트남의 고상구 K&K 트레이딩 회장, 싱가포르의 정영수 CJ그룹 글로벌 경영 고문, 말레이시아의 이마태오 케이엠티자야(KMTJAYA)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서 남방 지역 진출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아프리카·중동' 세션에서 김점배 아프리카·중동 한상총연합회 회장 등 발표자들은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하고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소비시장이 확대하는 아프리카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상을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열린 '한상 비즈니스 네트워킹'에서는 참가자들이 지역·업종별로 기업과 상품 소개에 이어 명함을 교환하고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청년인턴 79명 채용·2억1천만弗 수출상당

25일 오전에 열린 '한상 비즈니스 플랫폼'에서는 국내 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K-뷰티 Trade쇼'가 열렸다.

이어 청년 채용 인턴십 프로그램인 '한상&청년, Go

Together!'를 통해 23개국 46개 동포기업이 국내 청년 79명을 선발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범 오스트리아 영산그룹 회장과 송창근 인도네시아 KMK글로벌스포츠팀 회장은 '글로벌CEO 특강' 연사로 나서 기업을 일군 경험담을 전하며 국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응원했다.

박기출 대회장은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한상 기업을 통한 국내 청년 1천 명 채용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490개의 부스가 들어선 기업전시회와 일대일 비즈니스미팅, 한상 비즈니스 세미나 등 다각도로 진행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8천366건의 미팅이 이뤄졌다.

재단 관계자는 "미팅을 통해 2억1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다"며 "향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서포트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리더들이 2년 전 만든 사회공헌 재단 '글로벌한상드림'은 이번 대회에 '글로벌한상드림 2018 드림서포터즈' 8명을 선발해 10년간 매년 최대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참가자들의 성금 등을 모아 인천지역 내 탈북가정과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학생 22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폐회식에서는 차기 개최지인 전남 여수시로 한상대회가 전달됐고, 국악과 재즈의 협연으로 꾸며진 피날레 공연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 환송 만찬이 이어졌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를 통해 구축된 한상과 인천지역 경제인들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 돼 지속적인 비즈니스 성과가 나오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

1.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다.

2. '하나된 한상, 함께 여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한상과 국내 기업인 등 5,000여 명이 참가했다.

3.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는 중소기업 특별관, 아이디어 상품관, 글로벌 식품관, 수출 우수기업관 등 259개 전시 부스가 운영됐다.

4. '한상&청년, Go Together!'를 통해 23개국 46개 동포기업이 국내 청년 79명을 선발했다.

기대 커진 교황의 역사적 방북... 한반도 평화 여정에 큰 등대 되나?

“공식초청장 오면 갈 수 있다”... 마지막 냉전 지대서 평화 주선 역할 할 듯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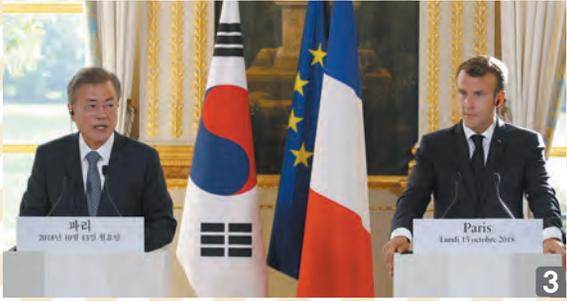
1.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18일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 교황 서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 교황청을 공식방문한 문 대통령이 10월 17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한반도평화를 위한 특별미사'가 끝난 뒤 퇴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북한의 공식초청장이 오면 나는 갈 수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10월 18일 교황청을 공식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는 선명했다. 교황은 문 대통령의 구두 전달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북한의 공식초청장을 받으면 방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설명에 이러한 견해와 주문을 곁들였다. 가톨릭 교계의 정점에 있으면서 전 세계 화해와 평화의 메신저로서 지대한 역할을 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실상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비핵화를 넘어선 한반도 평화정착이 일대 변곡점을 맞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당장,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 여정에 큰 등대로 기능하며 평화프로세스에 한층 속도를 붙여주리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교황이 방북한다면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순간일 뿐 아니라, 기독교 문명국가들과 전 세계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 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마지막 냉전 지대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북한 땅을 찾아 평화를 기원하고 화해를 중재하는 사도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파급 효과가 극적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평화 미사’에 감격... “남북 화해 진전되길”

10월 17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평화를 위한 미사’가 열린 교황청 성베드로 대성당은 남북한의 화해와 평



3



4



5



6

3. 프랑스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이 10월 15일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4.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10월 19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 본부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5.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이 10월 19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이사회 본부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6.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월 13일 파리 메종 드 라 무투알리테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준비된 홍보 영상을 보고 있다.

화를 염원하는 간절함으로 꽉 채워졌다. 특히, 이탈리아 거주 동포들과 현지에서 유학하거나 생활하는 성직자들의 감회는 남달랐다. 이날 미사에는 로마는 물론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에 거주하는 동포와 주재원, 이탈리아 곳곳에 퍼져있는 신부님과 수녀님 등 500여 명의 한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지중해 섬나라 몰타에서도 2명의 동포가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참석해 이날 미사에 쏠린 동포사회의 관심을 짐작하게 했다. 첫머리 유아부터 현지에 반세기 가까이 거주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현지 동포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미사 내내 진지한 표정과 한목소리로 고국의 평화와 남북한의 화해를 기원하는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 “비핵화 견인책 필요”… 英·獨 “공감”

교황청 공식 방문에 이어 아셈(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벨기에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10월 19일 “북한이 계속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인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셈이 열리고 있는 유로파 빌딩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및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은 작년 11월 이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발사대 폐기 약속에 이어 미국의 상응 조치 시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리농 농축 핵물질을 만들 수 있는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까지 밝혔다”고 설명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메이 총리에게 “적어도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메이 총리와 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고, 북한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좀 더 과감하고 확실한 행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韓佛 정상 “北CVID 의견일치, 평화적 비핵화해야”

한국과 프랑스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평화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전략대화를 각각 매년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과 에마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0월 15일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6개 항목으로 구성된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프랑스서 촛불 든 고마움 잊지 않아”

문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 기간에 현지 동포들을 격려하고 한불 우호 관계의 진전에 애쓰는 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전임 정부 시절 국정농단에 반대하며 프랑스에서도 촛불을 든 동포에게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0월 13일 파리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파리 국제대학촌에 한국관이 개관한 소식을 언급하며 동포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창]**

고려인 강제이주 81년… ‘디아스포라’의 아픔 ‘현재진행형’

불모지에 뿌리내린 놀라운 생명력… 자녀교육 힘써 각 분야에서 두각

1937년 연해주에서 뿌리째 뽑혀 중앙아시아에 내던져진 고려인들의 생명력은 놀라웠다. 농기구도 제대로 없었으나 맨손으로 황무지를 개간하고 물길을 내 논을 만들었다. 중앙아시아에 벼농사가 자리 잡은 것은 전적으로 고려인들이 이뤄낸 성과다. 고려인들은 다른 곡물과 채소 재배에도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말 그대로 불모지에 다시 뿌리를 내려, 가지를 뺏고 열매까지 맺은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김병화는 쌀과 목화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린 공로로 두 차례나 노동영웅 훈장을 받았다. 그가 일했던 북극성 콜호스(집단농장)는 소련 최고의 모범 농장으로 꼽혔고, 1974년 그가 숨지자 업적을 기려 ‘김병화 콜호스’로 이름을 바꿨다. 김병화의 성공기는 1956년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에도 소개됐다. 카자흐스탄의 김만삼과 우즈베키스탄의 황만금도 빼어난 농업 실적을 거둬 노동영웅 칭호를 받았다. 1960년대까지 인구 30만 명의 고려인 사회는 201명의 노동영웅을 배출했다. 민족 구성원 비율로 볼 때 단연 으뜸이었다.

“고려인은 어디에 가든 학교부터 지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농사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최표덕(최 표트르 이바노비치)은 2차대전 때 스탈린그라드(지금의 볼고그라드) 전투에서 공을 세워 적기훈장을 받은 데 이어 평생을 군에 몸담으며 최고 영예인 레닌훈장까지 받았다. 포병부대 지휘관으로 베를린까지 진격했던 황동욱과 우크라이나 해방 전투에 참가한 이 발렌티나 니콜라예브나 등도 2차대전 영웅이었다.

1953년 스탈린 사후 고려인 차별정책이 중단되자 학자·교사·의사·엔지니어·법률가·공무원 등 각종 전문직에 활발하게 진출했다. 특히 고려인들은 가난과 고된 노동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자녀교육에 온 힘을 쏟았다. 1989년에는 고려인의 도시 거주 비율이 85%에 달했다. 대학 진학률도 25%를 기록해 소련 내 140개 민족 가운데 아르메니아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강제이주 직후 80%에 달하던 농업인구는 12%



로 줄고 대부분 도시 거주 중산층이 됐다. 임영상 한국외대 전 교수는 “고려인은 어디로 이주하든 학교부터 지었고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 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겼다”면서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들이 현지인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고 설명했다.



소련 해체 후 러시아어 지역으로 재이주

1991년 소련 해체는 또다시 고려인에게 시련을 안겨주었다. 유일한 공용어 러시아어만 구사하다가 연방에서 독립한 중앙 아시아 나라들이 민족어를 공용어로 선포하자 각종 전문직과 공직에서 밀려나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피땀 흘려 이룬 터전을 버리고 다시 살길을 찾아 러시아어 사용 지역으로 떠나는 행렬이 줄을 이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선조들이 강제이주 전에 거주했던 '제2의 고향' 연해주를 택했다. '제1의 고향'인 한국을 택한 이들도 있었다.

외교부 집계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으로 구소련권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에 18만2천957명, 러시아 15만9천419명, 카자흐스탄 10만5천400명, 키르기스스탄 1만7천617명, 우크라이나 1만2천177명, 벨라루스 1천265명, 투르크메니스탄 1천48명, 타지키스탄 634명이 살고 있다. 모국 귀환 동포는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러시아·우즈베크·카자흐에서 성공한 고려인들

러시아에서 성공한 고려인으로는 지난해 9월 이르쿠츠크 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선된 세르게이 텐을 들 수 있다. 러시아군 소장 출신 유리 엄도 스타브로폴 주 부지사와 연방 하원의원을 역임했다. 재계에서는 러시아 100대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은행가 이고리 김, 전자결제시스템 운영회사 키위의 대표 보리스 김, 산업용 펌프설비 생산업체 기드로마슈 서비스의 이사회 의장 게르만 최 등이 꼽힌다. 학계 인물로는 하바롭스크국립대 엘레나 강, 국립공업수산대 총장을 지낸 게오르기 니콜라예비치 김, 과학공훈자 작위를 받은 물리학자 유리 안드레예비치 흥 등이 대표적이다. 대중문화계에서는 여성 가수 아나타 최가 인기를 끌고 있고, 언론계에서는 마리아 김이 최대 TV방송 러시아의 뉴스 앵커로 활약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원의원이자 국영항공사 대표인 발레리 정이 성공한 인물로 손꼽힌다. 그는 1992년 카리모프 대통령이 처음 방한할 때 특별기를 조종해 눈길을 끌었다. 타슈켄트 고려인문화협회장 박 빅토르는 2015년 고려인 출신으로는 처음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비탈리 편은 1996년부터 17년

간이나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로 재임했다.

카자흐스탄 정계에서는 카자흐고려인협회장 김 로만 하원의원,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 게오르기 상원의원, 채 유리 전 상원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구리 생산업체 카작무스의 회장 김 블라디미르는 카자흐스탄 최대 갑부로 꼽힌다. 스포츠스타로는 한국계 피겨 영웅으로 지난 7월 고향에 피습당해 숨진 데니스 텐을 들 수 있다. 구한말 의병장 민공호의 고손자인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국내외 팬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다. 프로권투 미들급 통합 챔피언으로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게나디 골로프킨도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았다.

"4세도 동포로 인정해야"... 관련법 개정 목소리

현행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고려인특별법)은 '구소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국내 귀환 고려인은 제외된다.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시행령은 동포 3세까지만 인정해 동포 4세는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국내 귀환 고려인은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동포 4세 자녀가 성인이 되면 출국시켜야 한다. 이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러 의원이 국내 귀환 고려인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을 제출한 상태. 현재 국내의 미성년 고려인 4세는 1천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

1.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1967년 벼농사 작황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해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카자흐스탄 국립영상보존소 소장 기록물을 입수해 공개했다.
2. 우즈베키스탄의 김병화 박물관과 그의 흉상. 강제이주 후 탁월한 농업 실적을 올려 두 차례나 노동영웅 훈장을 받았다. 1974년 사망하자 북극성 콜호스(집단농장)는 그의 업적을 기려 김병화 콜호스로 개명했다.
3.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의 고려인 재정착촌 '우정마을'.
4. 2016년 6월 20일부터 5일간 서울과 천안, 용인 등에서 진행된 러시아·CIS 지역 동포 초청사업에 50여명의 동포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5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 강제이주·징용자 본인 또는 후손, 동포사회 기여 공적이 큰 유공 동포 및 모국 방문 경험이 없는 고려인 동포로 선조들의 행적과 정체성의 뿌리를 찾아 한국을 방문했다.
5. 국내 거주 고려인들이 지난해 6월 9일 고려인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

“재일동포의 존재는 일본이 인권국가인지 가늠할 ‘바로미터’”

재일동포 법적 지위 향상 · 한일 친선교류 앞장선 **오공태** 前 재일민단 단장



“재일동포 1~2세들은 친정 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가 없이 모국돕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들을 대신해 상을 받은 거라 기쁨도 크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재일동포 2세로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은 오공태(71) 전 재일본대한민국

민단(이하 민단) 단장은 “지금까지의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기쁘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고 격려를 받은 거 같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오 전 단장은 재일동포 사회의 중심단체인 민단을 2012년부터 6년간 이끌면서 동포의 법적 지위 신장, 한일 친선교류 확대, 헤이트스피치(인종차별발언) 대책법 제정,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지원, 한일 양국의 각종 재난·참사 모금 활동 등을 주도했다. 나가노 현 출신이며 23세 때 재일청년회 활동을 시

작으로 나가노 지방민단 단장과 중앙민단 부회장, 중앙민단 단장을 거쳐 현재 상임고문으로 47년째 조직에 몸을 담아온 ‘민단맨’이다. 취직차별 철폐운동과 지문날인 거부 투쟁 등 동포들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온 그는 재일동포의 존재에 대해 “인권국가로서 일본의 바로미터”라고 표현했다.

재일동포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올드커머(일제 강점기 이주자와 그 후손, 35만 명) 중심인 민단이 1980년대 이후 건너온 뉴커머(20만 명)뿐만 아니라 귀화자(35만 명)와 재일조선족(10만 명)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가노 현에서 파친코 사업 등으로 연 7천5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산코소지 그룹을 이끌며 10년째 동경한국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차세대가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말과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는 소신에서 주말한글학교 후원에도 적극적이다. 서울과 도쿄에서 매년 열리는 ‘한일축제한마당’의 일본 측 대표로도 봉사하는 그는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힘닿는 데까지 민간 차원의 양국 문화교류 활동과 재일 차세대 육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 대학서도 한국어 수업... “한국 알리는 현지인 늘어 뿌듯”

佛 중부 산악지역 클레르몽페랑서 한국 알리는 **박선영** 한글학교장

재일동포 박선영(43) 씨는 프랑스 중부 산악지대 도시인 클레르몽페랑에서 8년째 한글학교 교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는 “한류에서 시작된 현지인들의 한국어 배우기가 최근에는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대하는 추세”라며 “한글학교에서는 이들과 한인 입양인 등을 대상으로 성인반도 열고 있다”고 소개했다. 학교는 유아반 · 아동반 · 성인반 등 3개 반에 1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현지인이 50명을 넘으며 입양

인도 15명에 이른다. 박 교장은 “시청에서 교육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으며 한국문화 행사에는 지역민도 함께 할 정도로 학교가 주목을 받는다”며 “그 영향으로 올해 처음으로 인근 시그마엔지니어링대학교와 생마리 고등학교에 제2 외국어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됐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한국어 교육이 초등학교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유학으로 프랑스로 건너간 그는 클레르몽페랑에 있는 블레즈파스칼대에서 현대불문학으로 박사과정을 마쳤다. 유학생활 초기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인 입양인 출신의 남편을 만나 정착했다. 남편은 입양 후 처음 만난 한국인이라며 반가워했고 친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간직해 온 것을 안 그는 한국의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수소문해 가족 상봉을 도왔다. 남편은 친부모로부터 버려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정은 달랐다고 한다. 친부모가 형편이 어려워 잠시 친척 집에 맡겼는데 친척이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입양기관으로 보내는 바람에 프랑스에 입양된 것이었다.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친부모는 아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국내 입양

기관 규정상 입양인이 찾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규정 때문에 연락이 오기를 계속 기다렸다고 한다. 박 씨는 “크게 반기며 기뻐하는 가족을 만난 남편은 맘 속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고 한국의 가족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낸다”고 귀띔했다. 이를 계기로 박 씨는 입양인의 친부모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금까지 10여 명의 상봉을 도왔다.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잘 살아가자는 것이 회사의 경영 방침”

남미 파라과이 양계 시장 1위 기업 이끄는 **구일회** 대표

남미 한가운데 자리한 파라과이 양계 시장의 40%를 점하며 업계 1위 기업을 이끄는 한인이 있다. 주인공은 이민 2세인 구일회(49) 라스 따쿠아라스 대표다. 인천 세계한상대회(10월 23~25일)에 참가한 그는 성공 비결을 “파라과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품질 향상 못지않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나눔 활동에 집중한 덕분”이라고 밝혔다. 1965년에 농업 이민으로 파라과이로 이주한 부친 구완서 씨는 양계업에 눈을 돌려 10만 마리 규모의 회사를 운영했다. 그러다 성장에 한계를 느껴 미국에서 생활하던 장남인 구 씨를 불렀고 1997년 회사를 물려받은 그는 20여 년 만에 130만 마리 규모로 키웠다.

구 씨는 “회사를 물려받을 당시 양계업은 수작업이 많아 인건비 부담도 컸고 위생 상태도 고르지 못했는데 자동화로 바꾸면서 경쟁력이 늘어났다”며 “수익이 늘어나면서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은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환경이 열악한 공립학교를 후원해 사립학교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주력했다. 파라과이는 초·중·고교가 하나의 학교로 묶여있는데 지금까지 5개 학교와 후원협약을 맺어 교사

신축·담장 보수, 환경 정비, 재정 후원 등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현지 사회에 알려지면서 신뢰를 받은 기업이 됐고, 이는 매출로도 이어져 올해부터 업계 1위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됐다. 구 대표는 “이민자인 한국인을 받아준 파라과이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이 있다”며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잘 살아가자는 것이 회사의 경영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2년 전부터는 양계장에서 나오는 80톤에 이르는 배설물을 활용한 비료사업을 시작했고 부동산개발업에 착수하는 등 사업 다각화도 추진해 올해 3천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한다. 한인 5천여 명이 거주하는 파라과이의 한인회장을 3년 전부터 맡은 그는 “파라과이 한인사회는 이민 1세대와 2세대로의 바통 터치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신구세대 간 화합이 잘 되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창]**

슈뢰더 전 독일 총리-재독 동포 김소연 씨 부부, 서울서 결혼 축하연

“제 인생의 절반 한국에서 아내와 함께 살겠다는 약속 실천할 것”

“독일과 한국의 저희 부부가 이 자리에서 하나 되고 통합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한반도도 오늘처럼 좋은 날, 기쁜 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재독 동포 김소연 씨 부부의 결혼 축하연이 10월 28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다. 슈뢰더 부부는 앞서 10월 5일 베를린의 유서 깊은 최고급 호텔인 아들론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축하연에는 이홍구·김황식·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 시장,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했다. 화촉 점등을 시작으로 신랑과 신부가 입장했고, 하객에 대한 인사와 선물 교환 등 순서가 이어졌다. 김소연 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위한 노래 가사 형식의 시를 낭송하고 그림을 선물했고, 슈뢰더 전 총리는 ‘장모님’에게 준비한 선물을 전했다.

김소연 씨가 시를 낭송하는 동안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울먹였고, 슈뢰더 전 총리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식 축하연에 앞서 슈뢰더 부부가 리셉션장에 모습을 보이자 하객들이 부부와 함께 사진을 찍고자 길게 줄을 서는 모습도 펼쳐졌다. 축하연이 진행되는 동안 슈뢰더 전 총리는 김소연 씨와 한국에 대한 애정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맞습니다. 아름다운 부인의 말을 듣는 것이 평탄하게 사는 길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약속한 것이 앞으로 제 인생의 절반은 한국에서 함께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슈뢰더, 5·18묘지 참배...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해서 얻어내는 것”

슈뢰더 전 총리 부부는 10월 26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했다. 작년 9월 방한 당시 영화 ‘택시운전사’를 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부인 김소연 씨가 10월 28일 서울 중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결혼 축하연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좌).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부가 10월 26일 오후 광주 북구 망월동 5·18 옛 묘역에서 영화 ‘택시운전사’ 속 독일 기자의 실제 주인공 위르겐 힌츠페터의 추모비를 참배하고 있다.

람하고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슈뢰더 전 총리는 이번 방한 기간 영화의 배경인 광주의 민주묘지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한다. ‘택시운전사’는 5·18 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를 도운 택시 운전사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김소연 씨와의 결혼으로 ‘한국의 사위’가 된 슈뢰더 전 총리가 한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택한 방문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슈뢰더 부부는 구묘역 제단을 참배한 데 이어 힌츠페터의 유해 일부가 안장된 추모비를 찾았다. 힌츠페터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광주 민주화 운동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 신경순 소장의 설명에 슈뢰더 전 총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장소는 젊은 세대에게는 민주주의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해서 얻어내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장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창**

“어렵지 않네요”…

터키서 한국어 제2외국어로 채택 · 수업 시작

이번 새 학기부터 교과서 한국어 과목 개설… “소수지만 시작에 의미”

“모음 ‘오’는 응원할 때 내는 소리인데, 이를 위아래로 뒤집은 모음 ‘우’는 아유가 되지요. 다 같이 ‘오’ 소리를 내봅시다. 오~”

10월 1일 국립양카라대학교 부설 고교의 제2외국어 한국어 수업에서 교사가 한글 모음을 가리키며 설명을 하자 학생들은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목소리로 따라 했다. 이날은 이번 학기에 개설된 한국어 수업 두 번째 시간이었다. 앞서 작년 2월 터키 정부는 초·중·고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제2외국어 과목에 한국어를 추가했고, 이에 따라 이번 가을학기부터 한국어 교과가 정식으로 개설됐다.

양카라대 부설 고교는 새 학년을 맞아 한국어 과목을 신청한 학생 40여 명 가운데 제2외국어 수업을 처음 듣는 14~15세 9학년(한국의 중3~고1에 해당) 학생만 선별해 8명으로 한 반을 구성했다. 한국어반 8명 가운데 6명은 부설 고교 2곳 중 과학고교 소속으로, 한국의 기술발전과 대기업, 한국 유학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취재진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서 보여준 인지 우이살(여) 학생은 “서울대학교 같은 한국의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면서 “한국 유학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한국어 과목을 선택했다”고 당차게 소개했다. 다른 학생 메르트 부르살리오(15)는 “나는 기술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한국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한 나라로 유명해서 한국어를 선택했다”면서 “터키에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한국어를 익혀서 뭔가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어반을 담당하는 유은미 교사는 “이제 한 번 수업했을 뿐인데 아이들이 한글의 자모 조합 원리를 금세 깨우쳐서 스스로 자음과 모음을 바꿔가며 어떤 소리가 만들어지는지 알아낼 정도”라며 아이들의 열의가 대단하다고 전했다. 이이트 권뒤츠(14) 학생은 “한국어가 터키어와 비슷해서 쉽게 배울 것 같다”고 했다.

한국어가 터키 교육과정에 제2외국어 목록에 추가됐지만,



10월 1일 터키 국립양카라대학교 부설 고교 한국어 수업에서 교사 유은미 씨가 학생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 학교는 이번 새 학기부터 제2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 수업을 개설했다.

현재 실제로 반을 개설할 여력이 있는 곳은 양카라대학을 비롯해 한국어 전공이 운영되는 대학 3곳의 부설 고교를 비롯해 극소수다. 한국어 교원 과정을 이수한 터키인 교사가 아직 배출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맞는 교재도 개발되지 않은 탓이다.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되는 데 크게 기여한 양카라대 한국어 문학과장 에르탄 괴크멘 교수는 “일단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돼 일선 학교에서 수업이 시작됐다는 게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외국 학생에게 맞는 한국어 교재가 다양하게 개발돼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조언했다. 그는 “현재 한국어 교재는 해외 한인 2, 3세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라 외국 학교에서 쓰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수업을 참관한 최흥기 주(駐)터키 대사는 “한국과 터키의 관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가까운 관계”라면서 “여러분이 한국어를 익혀 두 나라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

하재림 연합뉴스 터키 양카라 특파원

고경주 · 흥주 일가족 미 코네티컷 주 ‘명예의 전당’에 헌액 아시아계로는 최초… “코네티컷 주 이민사에 뚜렷한 족적 남겨”

미국 연방정부 보건부 차관보를 지낸 고경주(영어명 하워드 고) 전 하버드대 교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법률고문과 예일대 법대학장을 역임한 고흥주(영어명 헤럴드 고) 예일대 법대 교수 형제 일가족이 최근 코네티컷 주 ‘2018 이민자 유산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올해로 6회째인 헌액식은 9월 27일 플랜츠빌 소재 아쿠아 터프 클럽에서 폴란드 아메리칸 파운데이션 주최로 열렸다. 행사에는 고경주 · 흥주 씨 형제와 어머니인 전혜성(89) 동암연구소 이사장, 둘째 딸 고경은(영어명 진 피터스) 예일대 법대 교수 등이 참가했다. 이들 4명과 작고한 아버지 고광림 박사를 포함해 5명은 코네티컷 주 이민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겨 이날 ‘명예의 전당’에 아시아계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왼쪽부터 고경주 박사, 어머니 전혜성 소장, 고경은 예일대 교수, 한사람 건너 고흥주 교수, 고흥주 교수가 왼손에 든 액자는 작고한 부친 고광림 박사 사진.

고흥주 교수는 부친의 사진을 헌액식에 들고 참석했다. 그는 “우리 부모님은 모국인 한국 문화를 미국에 멋지게 소개하는 다리 역할을 훌륭히 잘 해주신 분들”이라며 “우리 가족에게 이런 영예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미대사관 공사를 지낸 고광림 박사는 1961년 예일대 방문학자로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에 가족과 함께 정착했다. 센트럴 코네티컷 주립대에서 1966년부터 1989년 작고할 때까지 정치학 종신교수로 근무했다. 부인 전혜성 박사와 함께 동암문화연구소를 설립해 한인 2세 교육과 한국 문화 및 동아시아 문화를 미국 주류 사회에 소개하고 전파했다. 19살 때 미국 유학차 태평양을 건넌 전 박사는 보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예일대, 예일대 로스쿨 강단에 섰다.

“대북사업 선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하용화 월드옥타 신임 회장, 창원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서 향후 계획 밝혀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하용화(62) 신임 회장은 10월 31일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다가올 북한 시장 개방에 맞춰 월드옥타 회원이 대북 사업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월드옥타 20대 회장에 선출된 하 회장은 “북한 시장 진출과 상품 수출 및 수입의 디딤돌 역할을 월드옥타가 나서서 하겠다. 현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우리는 북한 진출에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하 회장은 1986년 미국으로 건너가 보험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1992년 ‘솔로몬보험’을 창업했으며 뉴욕 한인회장을 지냈다.

전 세계 74개국 147개 도시에 지회를 둔 월드옥타는 10월



하용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신임 회장.

29~31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800여 명의 월드옥타 회원과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인, 경남 지역 대학생 등 1천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3차 세계한인 경제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2억3천만 달러의 상담이 이뤄져 6천200만 달러의 계약이 체결됐으며 해외 취업 희망자 50여 명 가운데 면접을 통과한 22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고 월드옥타측은 밝혔다. 신임 하 회장은 김성학 호주 멜버른 지회장을 신임 이사장에, 남기학 중국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했다. 월드옥타는 내년 4월 23~26

일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리조트에서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우리는 민간외교관’… “국내 다문화 가정 청소년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 국제결혼여성 세계대회 개막… 16개국 90여 명 참석

국제결혼으로 세계에 진출해 살던 한인 여성들이 고국을 찾아 연대방안을 모색하고 네트워킹하는 국제결혼여성 세계대회가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막했다.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World-KIMWA·회장 정명렬)가 주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16개국 37개 지회에서 9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국제결혼 한인 여성들이 하나가 되는 네트워크 구축’이란 주제 아래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정 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세계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좋은 여건 속에서 발전하는 모국과 여러 방면에서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민간외교관으로 꾸준히 걸어왔다”며 “우리는 자랑스러운 세계 국제결혼 여



10월 16일 개막한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 세계대회에서 감사패와 공로패를 받은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의 미래인 국내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10월 17~18일 특강을 듣고, 김예자(미국)·천순복(이탈리아)·은영재·정경옥(호주) 등 전 회장과의 토크쇼, 한강 유람선 승선 및 문화 체험 등에 나섰다. 또 정기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에 단독 출마한 정나오미(미국) 수석부회장을 추인했다. 50만 명에 달하

는 국제결혼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World-KIMWA는 2005년부터 회원 간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처지의 국내 결혼 이주 여성과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매년 고국에서 대회를 열고 있다.

“‘겨레말 사전 편찬’은 남북한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될 것” 베를린서 한글날 기념 한국 문화행사 열려

한독의원친선협회와 함부르크 한독협회가 10월 16일 베를린 연방하원 의원회관에서 한글날 기념 한국 문화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연방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을 상대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에서는 가야금 연주와 판소리 심청가, 진도북춤, 태권도 시범 등의 문화 공연이 진행됐고, 베를린자유대 이은정 한국학과장이 ‘한글과 한국문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행사에는 기독교민주당 의원인 카타리나 란트그라프 한독의원친선협회장 등 10여 명의 연방하원 의원들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선 정범구 주독 한국대사와 권세훈 주독 한국문화원장, 강신규 함부르크 한독협회장 등이



한독의원친선협회와 함부르크 한독협회가 10월 16일 베를린 연방하원 의원회관에서 한글날 기념 한국 문화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참석했다.

란트그라프 의원은 “독일 사람들이 한글에 관심이 많다”며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어 뜻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15세기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듯이 독일에서는 16세기에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양국은 분단을 경험했다”며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미래에는 문화와 스포츠면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베 슈멜터 한독협회 회장은 “남북한 협력사업으로 겨레말 사전을 편찬하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될 것”이라며 “옛 동서독의 경우 라이프치히와 만하임 중심으로 독일어 사전 편찬에 협력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伊 명문대에 한국자료실 개관… “한국학 연구에 상당한 도움 줄 것으로 기대” 국립중앙도서관 지원으로 책 3천권, 영화 DVD 등 갖춰

이탈리아 명문 ‘라 사피엔차’ 대학 동양학부 도서관에 한국자료실이 문을 열었다. 10월 16일 로마 시내 중심가에 있는 라 사피엔차 대학 동양학부 도서관에서 학생과 교수 등 약 300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자료실 ‘윈도 온 코리아’(Window on Korea) 개소식이 진행됐다. 한국자료실은 라 사피엔차 대학 동양학부 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협약에 따라 탄생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으로 한국어와 문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된 서적 약 3천권과 영화와 드라마, K-팝 DVD 등 다채로운 한국 관련 자료들로 꾸며졌다. 이탈리아에서 한국자료실이 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한국자료실 개관은 라 사피엔차 대학을 비롯한 로마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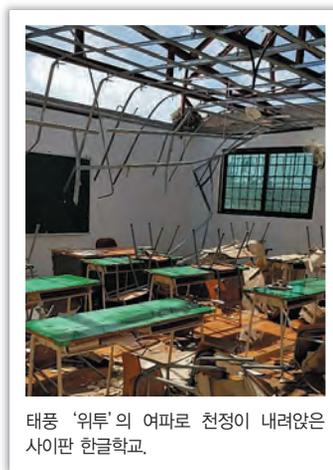


10월 16일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에서 열린 한국자료실 개관식에서 이 대학 한국학과 학생들이 한복을 곁게 차려입고 행사에 참석했다.

이탈리아 내 한국학 연구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사피엔차 대학은 700여 년 역사의 명문 대학이다. 한국학과는 2001년 설립된 이래 이탈리아 내에서 유일하게 학부부터 박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체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K-팝과 한국 드라마 등의 인기로 힘입어 재학생 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 재학생은 350여 명에 달한다. 박찬욱 감독 등이 만든 한국 영화에 매료돼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다는 한국학과 3학년 다비데 모리(21) 학생은 “한국 소설과 인문서는 물론 한국 영화 자료도 많이 구비돼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집이 통째로 날아갔어요”… 사이판 한인사회 태풍 피해 심각 전기·수도 끊기고 생필품 바닥… 한글학교 건물도 완파

슈퍼태풍 ‘위투’가 핏쥐고 간 사이판 남서쪽 지역 한인들의 피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 사이판 동포 박 모 씨는 10월 28일 “태풍이 강타한 지역에 사는 한인들의 집이 통째로 날아가는가 하면 천장이 무너지고 유리창이 깨져 폐허가 됐다. 대부분의 자동차도 바람에 뒤집혀 파손돼 고물이 됐다”고 알려졌다. 그는 “집을 잃은 한인들은 기거할 곳이 없어 그나마 피해가 덜한 이웃집에서 동거하고 있지만, 생필품도 식재료도 없어 하루하루를 막막한 상황에서 눈물로 보내고 있다”며 “북구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몰라 생계를 위협받는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태풍 피해를 본 한인인 대략 1천 명에 달하며, 주로 찰랑카노아와 단단, 코비라빌, 산빈센트 등지에 살고 있다



태풍 ‘위투’의 여파로 천정이 내려앉은 사이판 한글학교.

고 한다. 한인회와 여행사협회, 가이드협회는 한인들의 피해 상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현지 공관과 재외동포재단, 한국 정부, 언론사 등에 보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여행사협회 관계자는 “우리 가족, 친척들 챙기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생계가 막막한 실정을 잘 파악해 피해를 본 한인들을 한국 정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태풍은 현지 한글학교도 휩쓸고 갔다. 노종욱 사이판 한글학교 교장은 “교실들 천장이 다 내려앉고 현관과 교실 유리창이 깨졌다. 물이 교실 안으로 치고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며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

**‘봉오동 전투’ 흥범도 장군 75주기 추모식
 카자흐서 열려**

구한말 의병 활동과 일제 강점기 무장독립투쟁을 이끈 흥범도 장군(1868-1943) 순국 75주기를 맞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10월 25일 추모행사가 열렸다. 흥범도 장군 기념 사업회(이사장 우원식 의원) 주관으로 알마티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에서 개최된 추모행사에는 기념사업회 홍성덕 부이사장을 포함한 회원들과 주카자흐스탄 한국 대사관 및 알마티 총영사관 직원, 현지 교민과 고려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재외동포포럼, 창립 10주년 100차 포럼행사
 국회에서 개최**

재외동포포럼(회장 조흥제)은 창립 10주년 제100차 포럼 행사를 10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130여 명의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포럼은 ‘재외동포와 통일’이라는 큰 주제 아래 ‘러시아 연해주 한인 이주와 공동체(임재완 재외동포연구원 원장), ‘한반도 정세변화와 중국’(김상규 교수), ‘통일과 재일동포의 역할’(지충남 교수) 주제의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외국 살던 동포들 인천에 등지...
 송도 재미동포타운 입주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0월 2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재미동포타운 입주식을 열었다. 재미동포타운은 아파트 830세대·오피스텔 125실·상업시설 113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곳 아파트에는 외국에서 살던 동포와 외국인 등이 입주하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입주식 이후 10월 26일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된다”며 “재미동포타운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동포들이 편히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한인 변호사 350여 명 한자리에...
 美 애틀랜타서 연례콘퍼런스**

세계한인변호사회(IAKL)는 지난 9월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연례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 350여 명이 참가했다. 한인 변호사들은 데이트 보안, 엔터테인먼트·미디어 법률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토론했다. IAKL 해외회장인 피터 노 변호사는 “더 많은 한인 변호사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적 차원의 기업·입법·사업분야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브라질 상파울루서 ‘한식·한류와 함께하는’
 한국국경일 행사 열려**

브라질 상파울루 시내 힐튼 호텔에서 10월 18일 ‘한식·한류와 함께하는’ 한국 국경일 리셉션이 열렸다. 리셉션에는 브라질의 정계·재계·문화예술계·학계 인사, 한인 동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태평무·부채춤 등 한국 전통무용 공연이 펼쳐졌으며, 다양한 한국 음식이 소개됐다. 김학유 총영사는 한류와 한식이 한-브라질 우호관계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다면서 “내년에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독 간호사 주축 재독한국여성모임,
 40주년 연극 공연**

파독 간호사 출신들이 주축이 된 재독한국여성모임이 10월 20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창립 40주년을 맞아 연극 ‘에헤야 옹헤야 딸들이 일어나자’를 무대 위에 올렸다. 문화공간 우파파브릭에서 열린 이번 공연에서는 재독한국여성모임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무대에 섰다. 재독한국여성모임은 1977년 초 경기하강으로 독일 병원들이 한인 간호사를 강제해고하거나 송환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한인 간호사들이 결성한 단체다.



구한말 도미해 미군으로 1차대전 참전... 유럽에 남아 독립운동 펼친 황기환

평남 순천 출생인 황기환은 10대 후반이던 1904년 미국으로 갔다. 미국 땅에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던 그는 1917년 미국의 1차 세계대전 참전과 동시에 지원병으로 입대한다. 유럽 전선에 투입되어 중상자 구호를 주로 담당했는데, 언제나 '정의와 사랑'을 신조로 전선에서 활약했다는 내용이 당시 국내 신문에 다뤄졌다.

1차 대전은 1918년 11월 끝났지만 2년간 유럽 전선을 누비던 황기환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서 김규식(훗날 임시정부 부주석 역임)의 제안으로 프랑스 파리로 이동한다. 승전국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종전 후 국제정세 논의의 중심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곳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 강대국들을 상대로 대한독립의 당위를 알리는 일을 시작했고 황기환은 임시정부 파리위원부 서기장을 맡아 활동한다. 애국심이 투철한 데다 뛰어난 영어 실력과 미군 복무라는 희귀 경력까지 갖춘 황기환은 이후 프랑스·영국·미국 등 1차대전 승전국들을 누비며 활약한다.

최근 재발 한국사학자 이장규 씨(파리 7대학 박사과정)가 프랑스 국립자료관을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자료에서 황기환의 활약은 더욱 자세히 드러난다. 100년 전 러시아와 북해를 거쳐 영국까지 흘러들어온 한인 노동자들이 일 본으로 송환될 뻔한 것을 영국 정부가 설득해 프랑스로 이주시킨 주역이 바로 그였다. 먹고 살기 위해, 또는 일제의 압제를 피해 고향을 등진 한인들은 러시아 연해주를 거쳐 북해 무르만스크의 철도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1차대전이 끝나고 1919년 이곳을 점령한 영국군을 따라 에든버러까지 흘러들어 간다. 영국 정부는 당시 동맹국(영일동맹) 일본의 요구로 이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다. 소식을 들은 황기환은 영국으로 건너가 자신의 미군 복무 경력과 유창한 영어를 바탕으로 영국 정부에 항의, 한인 일부를 프랑스로 이주시키는 데 성공한다.

이 한인들은 1차대전의 최대 격전지 베르딩(Verdun)이 있



미국 뉴욕 퀸스의 한 공동묘지에 있는 황기환의 묘. 우측 상단은 독립운동가 황기환.

는 프랑스 마른(Marne) 지방의 벌판에서 시신과 유골을 수습하고 전사자 묘지를 조성하는 험한 일로 생계를 이어갔다. 한인들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전사자 시신을 수습하는 고된 삶을 살면서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았고, 독립운동에 쓰라면서 임시정부 파리위원부에 돈까지 모아 보냈다. 재발 한인동포 1세대 인 이들은 3·1 운동 1주년인 1920년 3월 1일에는 소도시 쉬프(Suippes)에 모여 만세삼창을 하면서 1년 전 조국에서 들볼처럼 번진 독립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황기환은 또 영국에서 활동하면서 프레더릭 아서 매켄지(1869~1931·영국 데일리 메일 기자) 등 친한파를 상대로 독립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알렸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매켄지는 의병 활동, 3·1운동, 일제의 제압 리 학살 등을 꾸준히 취재했고 1920년에는 '한국의 독립운동'이라는 책까지 썼다. 황기환은 이후 유럽을 벗어나 미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매진하다가 1923년 마흔이라는 이른 나이에 뉴욕에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친다.

“
**송환 위기 동포들 佛에 정착시켜...
 임정서 활동하며 강대국에
 독립 당위성 설파**
 ”

‘아메리칸 드림’ 이룬 美 민주당 첫 한국계 연방하원의원 앤디 김

미국의 11·6 중간선거에서 막판 역전극을 펼치며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소속 앤디 김(36·뉴저지주 3선거구)은 스스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자부하는 이민 2세대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줄곧 이민 1세대인 부모님에 이어 자신 역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며 자신의 가족사를 소개해왔다.

아버지 김정환(69) 씨는 소아마비를 앓는 고아 출신이면서도 매사추세츠 공대(MIT)와 하버드대를 거쳐 유전공학박사로 자리를 잡은 입지전적 인물이다. 가난한 시골에서 성장한 어머니 역시 간호사로서 뉴저지 주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앤디 김은 부모님의 헌신적 노력으로 뉴저지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시카고대를 졸업했다.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동 전문가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몸담았다. 2009년 9월 이라크 전문가로서 국무부에 첫발을 디딘 뒤 201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의 전략 참모를 지냈다. 2013년부터 2015년 2월까지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각각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이민자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반(反) 이민’ 정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자녀 2명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나는 가족과 이웃, 나를 키워준 커뮤



미국 한인사회 역사상 민주당 소속으로는 처음 연방하원에 입성한 ‘한인 2세’ 앤디 김이 11월 8일 뉴저지주 버링턴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밝히고 있다.

니티, 나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선사한 뉴저지 주를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 출마의 변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서는 미주 한인 역사상 첫 연방하원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중간선거 직후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이슈가 미국 외교정책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역할을 하겠다. 북한과의 평화는 나의 최우선 순위이고, 의회에 들어가면 그 이슈에서 노력할 것이다. 외교정책 이슈에서 의회 리더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반도 이슈에 대한 관심도 질문에는 “물론이다”라면서 희망 상임위로 ‘하원 군사위원회’를 꼽았다. “하원 군사위는 국가안보 이슈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임위”라며 “특히 아시아 및 한반도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이슈에서 크고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북핵이슈 해법과 관련, “간단한 해답이 없지만 한 가지만 꼽아야 한다면 지금의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북핵 문제는 당파 차원을 넘어서, 모든 미국인과 한국인,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풀어야 하는 이슈”라고 강조했다. 미주 한인사회의 이슈

는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뉴저지를 비롯해 미국 전역의 한인들 관심은 교육과 양질의 일자리다. 특히 고등교육과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다. 또 다른 이슈는 역시 북핵 대응과 한반도 평화 이슈다. 이러한 한인사회의 우선순위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의회에서 한반도 관련 이슈에 크고 강한 목소리 내겠다”

한-베 다문화가정 자녀 위해 도서 6천 5백여 권 기증

재외동포재단은 청소년 도서 출판사의 공동체인 청소년출판협의회(대표 신성중)와 협력해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6천 5백여 권의 한글 도서를 기증했다고 10월 8일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은 청소년출판협의회와 협력해 한-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6천 5백여 권의 한글 도서를 기증했다.

이번에 지원된 도서는 한국어 학습 교재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대상 문고들이다. 이 책들은 베트남 건너시에 올 초 설립된 '한-베 함께 돌봄센터' 내 도서관에 비치돼 한-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에 활용된다.

재단이 지난 3월 지원한 1천 5백여 권을 합하면 도서관은 8천여 권의 한글 도서를 소장하게 됐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책을 통해 한-베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우리말과 문화를 배워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잃지 않게 되길 바란다"며 "재단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은 한-베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앞으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인 유공동포 초청해 한민족 자긍심 고취

재외동포재단은 11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간 CIS지역 고려인 동포 44명을 초청해 한국의 발전상과 역사·문화를 체험하는 '고려인 동포 모국방문 사업'을 실시했다.



재외동포재단은 CIS지역 고려인 동포 44명을 초청해 자긍심을 고취하는 '고려인 동포 모국방문 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동포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큰 유공동포들을 대한민국에 초청해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한국사회 발전상과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과 고려인

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초청자들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6개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 중 모국방문이 어려운 독립운동가 후손과 강제이주·징용자 후손, 유공동포로 구성됐다.

이 중에는 독립유공자 구철성 선생의 손자 황 바체슬라브와 독립운동가 한성걸 선생의 외손녀 정 스베틀라나, 독립운동가 황운정 선생의 외손자 리 베체슬라브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6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투어를 시작으로 한국민속촌, 독립기념관, 임진각 일대, 경복궁, N서울타워 등 서울과 경기 지역을 오가며 한국의 문화유산과 지역별 역사·문화를 체험했고, 9일에는 청와대를 방문한 후 환송 오찬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중양아시아에 뿌리를 내려 현지화하는 고려인 동포들에게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려고 마련한 초청행사"라며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도 회복하고 돌아가면 이를 차세대에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 수료식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강남대가 주관한 '2018 멕시코·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 수료식'이 10월 25일 열렸다.



재외동포재단은 차세대 한인의 안정적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 14명을 초청해 3개월간 강남대에서 직업연수를 실시했다.

수료식에는 재외동포재단 차세대사업부 박종환 부장, 김정혜 차장,

강남대 김병일 평생교육원장, 윤승태 교목실장, 중남미 및 재학생 멘토단, 한인후손 수료생 등이 참석했다.

연수에 참여한 14명의 청년들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제과·제빵 전공 교육과 한국어·한국 문화 수업을 들었고, 주말에는 문화체험, 산업체 현장학습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연수는 한인후손들의 안정적 사회 진출 지원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



바른 말 고운 말

셋이나 넷은 서너

“만두라면 앉은 자리에서 세네 그릇은 먹을 수 있네.” 이 말에서는 수를 나타내는 토박이 표현 ‘세네’가 잘못 쓰였습니다. 수의 토박이 말은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사’가 있고, 수량이나 차례를 나타내는 품사인 ‘수사’가 있습니다. ‘세네 그릇’이라는 표현에서 ‘세네’는 뒤의 ‘그릇’을 꾸며주는 말로, 이 때는 ‘서너’라고 해야 맞습니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세 그릇이나 네 그릇’이라는 뜻으로 쓴 말로 ‘세네 그릇’이 아니라 ‘서너 그릇’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한편 ‘난 제주도에 너댓 번 갔다 왔어요’처럼 ‘넷이나 다섯’이란 것을 뜻할 때 ‘너댓’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네댓 번’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정리해 보면 ‘세네 그릇’이 아니라 ‘서너 그릇’이고, ‘너댓 번’이 아니라 ‘네댓 번’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이하다와 특기하다

“이번 대회에 신청하셨는데 본인의 특이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예문처럼 ‘특이(特異)하다’와 ‘특기(特記)하다’를 구별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먼저 ‘특이하다’라는 말은 어느 것과는 특별히 다르다는 뜻으로, 보통 사람과는 달리 몸에 특별한 성질이 있을 때 ‘특이 체질이다’ 또는 ‘특이한 체질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특이하다’라는 말에는 ‘보통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뜻도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재주가 있다면, ‘특이한 재주를 가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특기하다’라는 말은 특별히 기록한다는 뜻을 가진 동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할 만한 것을 뜻할 때는 ‘특기할 사항’ 또는 ‘특기 사항’이라고 합니다. 위의 예문에서는 어떤 대회에 신청한 사람에게 특별히 기록할 만한 것 또는 특별한 재능이 무엇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특이할 사항’은 잘못된 표현이고, ‘특기할 사항은 무엇입니까?’로 고쳐 말해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오른쪽 방향 열쇠

1.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집을 세 번이나 옮긴 일로 교육에는 환경이 중요함을 뜻함
3.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
5.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나타나 는 반원형 일곱 빛깔의 줄, 흔히, 비가 멎은 뒤 태양의 반대 방향에서 나타난다
6. 공간 영역의 크기를 표현하는 물리량이다. 넓이.
7. 날개와 그에 의해 발생하는 양력을 이용해 인공적으로 하늘을 나는 능력을 지닌 항공기를 말한다
9. 대한민국의 수도 이름
13. 목에서부터 위까지 이르는 척추 동물의 장기. 팔각근이 관 모양으로 길게 이어진 형태이다
14. 여러 가지 빛깔로 곱게 꾸민 한국의 전통 신발을 말한다. 주로 어린이나 여자들이 신는다
17. 날씨를 미리 알려줌
18. 한글을 창제한 조선시대 왕

▶ 아래쪽 방향 열쇠

1. 주관이나 원칙이 없이 덩어놓고 행동하는 것
2. 몹시 강력하여 하늘아래 적수 없음
3. 성냥의 날개비
4. 자기의 능력이나 가치를 확인하는 느낌
8. 재해 등의 사정으로 어떤 인물이 있는 장소·행선지·소식·안부 등이 확실하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한다
10. 대한민국에서 9번째로 넓은 섬이다. 포항에서 뱃길로 270km 떨어져 있다
11. 임진왜란 때 한산도에서 적선 70여 척을 무찌른 조선 선조 때의 명장. 저서로 ‘난중일기’가 있음
12. 대표적인 한국 요리의 하나로, 사발 그릇에 밥과 여러 가지 나물, 고기, 계란, 고추장 등을 넣고섞어서 먹는 음식이다
13.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려고 나라에서 정한 나무 심는 날
15. 작고 가늘어 변변하지 못하다. 몹시 가난하다. ‘○○하다’
16. 돼지 창자 속에 쌀, 두부, 숙주나물 등을 넣고 삶은 음식

▶ 2018년 10월호 정답

태	백	산	맥			사	은	회
권			주	무	신	다		전
도	시	락		더		리		의
			이	기	다	사		자
	비	봉		림		팔		
왕	비	주	먹	질		뜨		
복	자		이		무	기	한	
운	책	상	다	리				방
동	지	점		을	사	능	약	

나의 공간

박현서(중국) 동포문학상 중고등부문 장려상

나는 잠을 잘 때 꿈을 많이 꾸다. 궁금하다. 내가 해외에 살고 있어서 이런 꿈을 꾸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사는, 내 또래의 친구들도 이러한 꿈을 꾸는 것인지.

우리 나이의 아이들은 꿈을 많이 꾸다. 내 나이의 아이들처럼 나도 꿈을 많이 꾸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가지각색이고 흥미진진하다.

일상적인 내가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꿈에서부터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하늘을 비행하는 꿈, 다른 사람에 비해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꿈이지만 나는 내 꿈에서 의아한 것 하나를 발견했다.

비록 내용은 다르지만 비현실적인 꿈은 말할 것도 없고, 지극히 현실적인 꿈에서도 꿈을 깨고 나면, 꿈의 배경이었던 모든 곳들이 전혀 진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꿈에서 깨고 나면 그곳이 한국이었을까, 중국이었을까, 학교도 집도 꿈에서는 현실로 생생하게 느껴졌던 모든 곳들이 깨고 나면 비현실적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7살 때 중국에서 살기 시작했고 이미 이곳에서 10년이 나 생활하게 되었다. 나는 점차 한국에서 자란 시간보다 중국에서 지낸 시간이 많아졌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두 공간에서의 살아온 시간을 비교하게 되면서 '한국인'이란 무엇인지,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라고들 한다. 나는 왜 이런 배경이 나오는 꿈을 꾀야 했을까에 대해 생각해 봤다. 무의식중에 '한국인인 나'와 '중국에서 보낸 시간이 만든 나'의 모습이 갈등을 일으킨 건 아니었을까.

나는 한국과 중국 어느 곳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이미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꿈에서 나의 공간들이 모호한 배경으로 나타났던 것이었을까? 나는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하며 혼란스러웠다.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많은 나는 과학 관련 기사를 읽던 중 '생명 공간'이란 단어를 접하게 되었다. 생명 공간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을 말한다.



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고 그 결과로 자연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경제와 교통, 문화도 현실에 맞게 발전하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한 범위의 생명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특징은 새로운 '생활 공간'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생활 공간이란 한 개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간이라는 곳은 단순히 지구상의 위도와 경도로 지정된 곳은 아닌 것 같다. 나라와 도시에서 더 나아가 공간은 눈에 보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된 변화가 지층처럼 쌓여 있는 곳이다.

나는 오랜 시간 중국 내 여러 다른 지역에서 중국의 발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대로 오르고 있는 지금 나는 그 현장에서 중국의 엄청난 발전 속도도 느낀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인 과학으로 말하자면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각광 받을 정도로 빠르게 과학 강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우주 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드론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가속화하는 중국의 변화 속에서 많은 기업의 흥망도 있었고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 간의 갈등도 있었다. 한국과 중국 사이, 한류와 사드 등의 역동적인 관계도 나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 덧입혀지는 한층 한층의 시간과 변화들은 현재의 중국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나는 중국이라는 광범위한 생명 공간 내에서 여러 도시를 거쳐 다양한 나의 생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중국의 여러 지역, 그리고 한국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나의 생활 공간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기도 하면서 나의 행동과 선택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각에 달자 한국인과 중국인이라는 두 개의 집단 중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소외감과 혼란스러움이 조금은 정리가 되었다.

한국이라는 곳에 뿌리를 두면서, 내가 살아온 확장된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했다. 그러면서 나의 모든 생활 공간에서 충실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내 생명 공간이 넓어지고 확대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고자 한다. 예전 꿈속에서 나는 내가 그리고 원하는 모습이었을 때도 무언가 어색하다고 느꼈다. 한국에서의 미래를 꿈꾸지만 정작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빛어낸, 내 자신에 대한 불안이 만들어 놓은 모호한 배경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려 한다. 불투명한 막에 싸여 있는 듯한 아득한 상상에 불과한 꿈이 아닌 진짜 꿈을.

나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소외감을 주었던 막을 걷어내고, 진정한 나의 꿈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꿈의 밑바탕에는 나의 '생활 공간'에서 비롯된 경험과 지식들이 꿈을 향한 나의 선택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공간에서 살고 있다고 그 공간을 다 아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공간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에서 변화되고 있는 공간의 매력과 깊이를 느끼고자 한다.

그래서 시공간의 역사가 만들어 내는 그 지층 속에 나도 무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려고 한다. 한국인으로서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시공간에서 하나의 작은 역사로서 존재한다는 벽찬 사실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고 싶다. **[장]**

“전어 안 먹고 가을 보낼 수 없지요”

불포화 지방산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 도움 주고 두뇌 발달에도 좋아

바야흐로 전어의 계절이 왔다. 전어는 가을의 또 다른 전령사다. 구수하면서도 담백한 맛과 향이 손님의 발길을 붙잡는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전어 명산지에서 전어 축제들이 줄줄이 열리는 건 그래서 당연하다고 하겠다. 대표적 전어 고장 중 하나인 충남 서천의 흥원항을 찾아 그 진미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가을 전어 굽는 냄새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 전어의 진미를 언급할 때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찬사다. 그 맛과 향이 오죽이나 고혹적이었으면 집 나갔던 며느리가 저도 모르게 발길을 돌렸을까 싶다. 전어 식당 10여 곳이 줄지어 선 흥원항에 가면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 ‘비린내 없는 고소한 맛’ 등의 문구를 식당 벽면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문구처럼 전어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론 두뇌 발달에도 좋다고 한다. 여기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아 피부미용과 피로 해소에 좋을 뿐만 아니라 칼슘이 많은 뼈째로 먹으면 골다공증 예방 등에도 도움이 된

다는 것. 채소와 함께 먹을 경우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까지 고루 섭취할 수 있다.

구이·회·무침 ‘3종 세트’… 잃은 입맛 살린다

전어 요리는 구이와 회, 무침이 중심을 이룬다. 구이가 전어를 통째로 구워 고소한 냄새와 맛을 즐기는 것이라면,회는 전어의 보들보들한 육질을 만끽하는 음식이다. 무침에는 전어 회와 각종 야채, 그리고 양념이 두루 섞여 새콤달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다양하게 즐겨볼 수 있다. 전어구이는 전어를 산채로 급랭한 뒤 꺼내어 가스 그릴의 석쇠에 올린다. 2인용 1kg의 경우 10~12마리로 석쇠에 올려놓고 굵은 천일염을 뿌려준다. 그리고 15분가량 굽는다. 한쪽이 구워지면 뒤집어 다른 쪽을 굽는 방식이다. 이렇게 굽다 보면 노릇노릇한 구이가 맛갈스럽게 탄생한다. 구워진 전어는 양손으로 머리와 꼬리 부분을 잡고서 통째로 먹는데 내장은 물론 뼈까지 먹으면 맛이 더욱 좋다.

전어회는 비늘을 깨끗이 벗긴 다음 머리와 지느러미, 꼬리를





5



6

칼로 잘라 제거한다. 이어 내장과 등뼈도 말끔히 없앤다. 이때 중요한 것은 칼질이다. 예리한 칼로 잘게 어슷썰기를 해나가면 보들보들 식감 좋은 회가 완성된다. 상으로 내갈 때는 여기에 깨소금을 고명으로 살짝 뿌려주는데 그만큼 맛깔스러움이 더해진다. 회는 깻잎 채소에 얹어 먹으면 부드러운 고기의 맛과 신선한 야채의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물론 취향에 따라 초장, 된장 등을 찍어 먹어도 된다.

전어무침은 회, 야채, 양념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양배추, 당근, 깻잎 등의 야채에다 초장, 참기름, 고춧가루, 식초, 소금, 설탕 등의 양념을 골고루 넣고 정성스레 무쳐주면 회와 더불어 고소하면서도 단맛 나는 음식으로 재탄생한다. 특히 무침에 밥을 얹어 비벼 먹는 회비빔밥은 ‘밥도둑’이라는 말이 실감 날 만큼 진미 중의 진미다. 여기서 참기름을 살짝 넣은 미역국으로 깔끔하게 입가심하면 금상첨화다. **[참]**

- 1~2. 구이는 전어에 소금을 뿌리고 나서 15분가량 굽는다.
- 3~4. 비늘, 머리, 지느러미, 꼬리를 깨끗이 제거한 뒤 어슷썰기한 전어회에 깨소금을 고명으로 살짝 뿌렸다. 이를 깻잎에 싸서 초장이나 된장에 찍어 먹으면 식감이 그만이다.
- 5. 충남 서천 흥원항 식당 수족관에 헤엄치고 있는 전어.
- 6. 가을이 되면 대표적인 전어 축제인 '서천 흥원항 자연산 전어·꽃게 축제'가 열리는 흥원항.

전어 축제

가을이 되면 전국 곳곳에서 전어 축제가 다들 열린다. 대표적인 것이 '서천 흥원항 자연산 전어·꽃게 축제'로 올해는 9월 1~16일 펼쳐졌다. 18회째인 이번 축제에서는 서해에서 갓 잡은 싱싱한 전어를 회, 구이, 무침 요리로 다양하게 맛볼 수 있었다. 이상원 흥원항마을축제추진위원장은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잃었던 입맛을 가을의 진미인 전어와 꽃게로 되찾아드리기 위해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득량만 울포솔밭해변에서는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제14회 보성전어축제, 섬진강 망덕포구에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19회 광양전어축제가 열려 가을전어의 별미를 선사했다. 또 10월 5~7일에는 제10회 강진 마량미항 찰전어축제가 열렸다.



9월 2일 오후 충남 서천군 서면 흥원항에서 열린 전어·꽃게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전어 맨손으로 잡기 체험을 하고 있다.

서천군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정보

서천성북리오층석탑 → 마량리동백나무숲 → 흥원항 → 이하복 고택 → 문헌서원 → 한산모시관 → 이상재 선생 생가지

1박 2일 추천여행 코스

조류생태전시관 → 금강하구둑 → 신성리 갈대밭 → 체험마을농촌체험 → 한산모시관 → 이하복 고택 → 농촌체험마을 → 서천성북리오층석탑 → 준장대해수욕장

시티투어

운영 기간: 2018년 1월~12월, 매주 화~일, 1일 1회 운영(월요일은 휴무)

운영 인원: 매회 10~40명 선착순(최소 출발 인원 10명)

출발장소: 서천버스터미널(09:50), 서천 종합관광안내소(10:10), 장항역(11:40)

사전예약 및 문의: 서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http://tour.seocheon.go.kr>) 서천군 종합관광 안내소(041-952-9525)

탑승료: 청소년 이상 4천 원

식당정보

흥원항 분가 041-952-7922

2019년 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

재외동포재단은 내년 재단이 지원할 동포 관련 지원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각국 동포 관련 연구기관·협회·단체·교육기관 등은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동포사회의 교류 증진 및 권익 신장에 기여할 사업 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포사회의 민족 정체성 강화, 차세대 동포의 교류 확대, 중국 및 중앙아시아 한글 신문 발간,

한글학교 역사문화 캠프, 한인회관 확충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28일까지 온라인(www.korean.net)과 거주국 공관으로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82-2-3415-0054/0056)나 이메일(pms01@okf.or.kr)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재외동포의 모든 것! 코리아넷으로



통합 [통]

합니다

740만 재외동포 전문 포털 코리아넷은 재외동포 관련 뉴스,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민원 안내·접수, 재단 각종 사업 안내·접수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코리아

재외동포의
각종 정보 소식 전달

재외동포 지원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지원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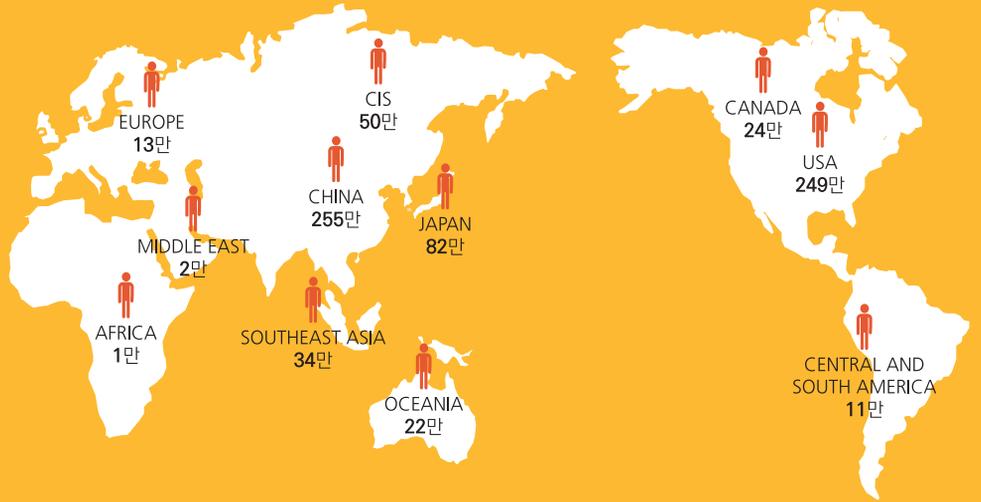
소통과 공감

이벤트 참여 및
커뮤니티 정보 제공

재외동포 신문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민원 신청/조회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4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